

대한양돈협회  
무안군지부



▲ 전남 무안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김상수 총무, 박성재 지부장, 손승용 재무, 임옥희 간사

## 약품 단일화로 이익 제공,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이미지 향상시키는 전남 무안지부

취재 : 정재은

전남 무안지부(박성재 지부장, 49세)는 연말에 공개입찰을 통해 약품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저렴하게 공급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지부는 대리점으로부터 매출 수금액의 10%를 지부운영비로 보조받고 있다. 또한 보온등과 니플 등 가장 많이 소모되는 기자재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무안지부는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양

돈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2년 말에는 돈육 후지를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정, 소년소녀 가장, 군부대 등에 기증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10일 승달 예술회관에서 무료시식회를 개최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부위 소비 촉진을 유도하였다. 한편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부부동반 야유회 등을 1년

에 2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무안지부는 회원들이 양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무안군(서삼석 군수, 김문필 축산계장)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2004년 추진사업으로 분뇨처리를 위한 액비탱크 설치를 군에 요청하였다. 또한 군으로부터 무인 농장출입구 소독 시설 설치시 지원을 받고 있다.



▲ 전남 무안지부 박성재 지부장

## 지역 양돈인들을 이끌면서 구심체 역할을 하는 무안지부

무안지부는 1988년 설립 이후 원활하지 않은 조직관리로 인해 1996년 7월에 폐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안군내 양돈인들의 교류 활성화와 친선도모, 권익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1997년 1월 재설립되었다. 현재 제3대 박성재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단합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무안지역 양돈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98개의 양돈농가가 13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무안지부는 36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5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일부 양돈농가는 목포지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0,000두 이상 대규모농가 2농가, 4,000두 규모 2농가를 비롯해 회원농가는 대부분 전업규모이며, 평균 사육두수는 1,400두 정도 된다. 임원은 박성재 지부장, 김임현, 오기호 부지부장, 조명철, 김동협 감사, 김상수 총무, 손승용 재무(이사 겸임), 장환기, 조명철, 김영식, 정도성 이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양돈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선거, TV홍보비 모금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하

고 있으며, 군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이 나오면 바로 구입해 가도록 연락을 해주는 등 지역 전체 양돈인들을 이끌고 있다.

## 약품 단일화와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으로 이익 제공

무안지부는 매년 연말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효과가 좋은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 가능한 대리점을 선정하여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약품 단일화 사업으로 회원들은 각종 약품을 싸게 구입하여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약품회사로부터 매출 수금액의 10%를 지부운영비로 보조받아 적립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보온등과 니뿔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 기자재 2가지를 공동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 불우이웃 돕기 및 무료시식회 등의 행사전개로 이미지 제고

무안지부는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



▲ 2002년 말에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돈육 후지 2,167kg을 기증하여 양돈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 지난 2003년 12월 10일 승달 예술회관에서 황토골 무안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양념된 후지에 양파, 마늘을 썰어서 넣은 후 은박지로 2인분을 싸서 구워먹는 독특한 요리법을 소개하였다.



▲ 무료시식회 행사는 800여명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화갑 민주당의원, 서삼석 무안군수 등이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사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2년 말에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돈육 후지 2,167kg을 기증하여 양돈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아동생활시설 소전원에 220kg, 몽탄프란치스코의집 외 2곳에 80kg, 성산정신요양원을 비롯한 6군데 장애인 및 노인시설에 760kg, 9개 읍·면 노인정에 320kg, 소년소녀 가장 46세대에 460kg, 무안 군 부대에 327kg을 전달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10일 승달 예술회관에서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진행된 황토골 무안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에서 무안 지부 회원들과 부인들은 양념된 후지에 양파, 마늘을 썰어서 넣은 후 은박지로 2인분을 싸서 구워먹는 독특한 요리법을 소개하였다.

이 요리법은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촉촉하며 담백한 맛이 우러나 800여명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후지 부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한 계기가 되었고, 한화갑 민주당 의원, 서삼석 무안군수 등도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정기적인 월례회의로 정보 제공 및 단합대회 개최

무안지부는 매월 20일에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이나 축산업등록제 등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회원들은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 교환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2달에 1번 정도는 월례회의와 함께 양돈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양 및 경영관리, 분뇨처리에 관한 세미나

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무안지부는 회원들로부터 연 30만원의 회비와 거래하고 있는 약품회사로부터 매출 수금액의 10%를 지원 받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한편 무안지부에서는 봄에는 야유회, 가을에는 산행으로 매년 2번의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 부부동반으로 이루어지며, 지쳐있는 심신을 위로하고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 무안지부의 단합대회는 대부분 부부동반으로 이루어지며, 지쳐있는 심신을 위로하고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 무안군과 협조아래 액비탱크 설치 위한 노력

무안지부는 민원 및 환경 관련 문제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분뇨처리를 위해서 무안군의 협조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2004년 말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가 되면 하루 100톤 가량의 분뇨를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무안지부는 2004년 추진사업으로 200톤 규모 액비탱크 40개를 설치하도록 군에 신청을 하였다. 박성재 지부장은 “액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마늘, 양파 재배농가에 제공해 줌으로써 무안군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기축산 실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양돈농가와 경종농가가 공생공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철저한 방역활동과 무인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무안지부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소독을 철



▲ 회원들은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교환을 해나가고 있다.

저히 하고 있으며,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발생시나 연꽃 축제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때는 톨게이트 등 무안군으로 들어오는 도로입구에서 회원들이 교대로 차단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도 무안군에서는 발생이 없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백신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무안지역 양돈농가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해주고 있다.

한편 무안지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 전남 무안지부 박성재 지부장(오른쪽)과 김상수 총무



▲ 임옥희 간사와 함께 지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박성재 지부장

무인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3년에는 무안군 보조 75%, 자부담 15%으로 20대를 지원 받아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50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았다.

## 양돈인들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양돈자조활동자금 제도로 정착되어야

박성재 지부장은 “양돈농가들이 안정된 생산라인을 통해 돼지를 사육하고 돈가 보장을 위한 알찬 소비홍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양돈자조활동자금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수 총무는 “양돈자조활동자금 제도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양돈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헤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대일 수출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북한에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양돈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대안제시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육두수나 농가수가 늘어서는 안되겠지만 줄어들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육가공 및 사료,약품, 기자재 등 관련업계는 양돈농가와 뿔 수 없으며, 양돈이 무너지면 전체 관련산업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많은 관심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승용 재무는 “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구분되어 판매될 수 있는 유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국산 및 수입산, 냉장 및 냉동 등의 기본적인 표시체가 정착되어 차등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돈**

## 본지캠페인

# 생처럼 솟는 힘, 돼지고기 먹은 힘